

주체의 자기비판과 새로운 윤리적 주체로의 전회

— 한강의 「나무불꽃」을 중심으로

주 지 영*

요약

본고에서는 한강의 『채식주의자』 연작 중 「나무불꽃」을 중심으로 하여 주체와 타자와 규범의 관계에서, 대안적 특수규범을 지향하는 여성 인물 '영혜'와 함께, '영혜'를 매개로 하여 자신의 성립조건인 보편규범을 문제 삼고 주체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꾀하면서 점차 타자를 배려하는 윤리적 주체로 질적 전회하는 여성 인물 '그녀'의 모습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그녀'는 남성중심주의와 가족중심주의, 그리고 정신병원 제도로 대표되는 보편 규범의 폭력성과 그러한 규범을 성실히 수행하는 주체이다. 반면, 동생 '영혜'는 폭력적인 보편규범을 거부하고 '나무'로 표상되는 대안적 특수규범을 지향함으로써 정신병원에 감금된 채 화석화되어가는 타자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녀'는 동생 영혜의 호소를 들으며 보편규범을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자신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면서 '나무'로 표상되는 타자의 특수규범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새로운 윤리적 주체로 거듭난다. 그것은 타자의 타자성을 읽어내는 주체에 의해 꿈과 현실, 인간과 나무, 주체와 타자,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허물어진 자리에서 배태된다.

주제어: 한강, 「나무불꽃」, 구성적 외부, 타자의 타자성, 새로운 윤리적 주체, 보편규범, 특수규범, 호소, 자서전적 성찰, 변역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목차

1. 머리말
2. 폭력적인 보편규범을 수행하는 모성적 주체
3. 화석화된 타자와 생명의 소리
4. 주체의 자서전적 성찰과 타자의 타자성 인정
5. 맺음말

1. 머리말

한강은 『문학과사회』(1993)에 시로, 『서울신문』(1994) 신춘문예에 소설 「붉은 닻」으로 등단한 이후 10여 권의 소설집과 장편소설을 출간하면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¹⁾ 한강은 「내 여자의 열매」에서 출발해 연작소설 『채식주의자』로 이어지는 작품을 통해, 여성의 정체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고는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으로 이루어진 『채식주의자』 연작 중 「나무불꽃」(『문학관』, 2005, 겨울호)²⁾을 중심으로 주체, 타자, 규범에 주목하여 새로운 윤리적 주체의 측면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본고가 「나무불꽃」에 주목하는 까닭은, 「채식주의자」와 「몽고반점」에는 남성중심주의에 저항하면서 대안적 특수규범을 지향하는 여성(영혜)이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반면, 「나무불꽃」에는 그러한 새로운 주체를 매개로 하여 타자를 배제하는 주체에서 타자와의 공거를 지향하는 윤리적 주체로 질적 전회를 꾀하는 여성(그녀)이 중심인물로 등장한다는 점에 있

1) 현재까지 출간된 한강의 주요 소설집 혹은 장편소설로는 『여수의 사랑』(1995), 『검은 사슴』(1998), 『그대의 차가운 손』(2002), 『내 여자의 열매』(2000), 『채식주의자』(2007), 『노랑무늬영원』(2012), 『바람이 분다, 가라』(2010), 『희랍어 시간』(2011), 『소년이 온다』(2014), 『흰』(2018), 『작별하지 않는다』(2021) 등이 있다.

2) 논의를 위한 텍스트는 2007년 창비에서 발간한 『채식주의자』에 실린 「나무불꽃」으로 삼는다.

다.

「나무불꽃」에 나타나는 ‘영혜’와 ‘그녀’와 관련된 이러한 측면은 여성의 정체성을 다루는 한국 소설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장면이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면서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윤리적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 그리고 화석화되어가는 대안적 특수규범을 되살려 보편규범을 재정식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관련된 초기 논의는 페미니즘 혹은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채식/육식, 식물성/동물성의 대비적 관계를 조명하며 여성의 정체성 찾기에 주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번역 연구 및 비교문학 연구를 위시하여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단계로 질적 성과가 축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 및 여성 정체성의 확립과 관련하여 근대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탈주라는 기본적인 해석을 공유하되, 『채식주의자』 연작에 관한 새로운 독법을 보여주는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여성의 ‘몸’을 중심으로 ‘변신’이나 ‘되기’에 주목하면서 인물형의 창작방법을 밝혀내는 연구³⁾, 인물의 정신병리학적 측면이나 심리 등을 주체성의 문제와 관련짓는 연구⁴⁾, 작품의 독특한 구성과 독법을 작가의 글쓰기에 관한 자의식과 관련짓는 연구⁵⁾ 등이 그것이다.

3) 장수익, 「감각과 분열증-한강 소설 연구1」, 『한국현대문학연구』 58, 한국현대문학회, 2019, 393-431면.; 양현진, 「한강 소설의 분신(分身) 구조와 주체성」, 『현대소설연구』 7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247-280면.; 심진경, 「변신하는 주체와 심리적 현실로서의 환상-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65, 세계문학비교학회, 2018, 61-76면.

4) 우미영, 「주체화의 역설과 우울증적 주체-한강의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0,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451-481면.; 손정수, 「식물이 자라는 속도로 글쓰기-한강론」, 『작가세계』 88, 2011, 봄호.

5) 박진, 「한강 연작소설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글쓰기의 자의식과 독서의 알레고리」, 『현대문학이론연구』 79,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105-128면.

특히 「나무불꽃」만을 다루는 기존 연구⁶⁾는 극히 드물고, 그마저도 ‘그녀’보다는 ‘영혜’에 주목하여, 영혜와 관련된 ‘나무불꽃-되기’ 또는 나무 변신 모티프가 갖는 의미를 밝히는 쪽에 치중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 논의들은 ‘영혜’와 ‘그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나무불꽃」을 대상으로, 대안적 특수규범을 지향하는 여성 인물인 ‘영혜’와 함께, ‘영혜’를 매개로 하여 자신의 성립조건인 보편규범을 문제 삼고 주체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피하면서 점차 타자를 배려하는 윤리적 주체로 질적 전회하는 여성인물 ‘그녀’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 및 규범과의 문제를 재사유함으로써 주체 개념을 윤리적인 것으로 재정립한 버틀러(Judith Butler)의 견해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윤리적 주체의 정립에 주목하고자 한다. 규범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공간적 지평에서 다른 지평으로 전이되면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시기 집단의 규범을 전체 사회의 윤리인 양 보편화함으로써 타자의 개별성이나 구체성을 억압하게 된다면 규범은 추상적인 보편성으로 전락한다.⁷⁾ 주체가 추상적인 보편규범에 종속되어 스스로를 완벽한 보편성 자체로 착각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주체는 외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게 되고, 그럼

6) 오은엽, 「한강 소설에 나타난 ‘나무’ 이미지와 식물적 상상력-「채식주의자」, 「나무불꽃」, 「내 여자의 열매」를 중심으로 -」, 『한국문학이론과비평』 7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6, 273-295면.

양정현, 「현대 소설에 나타난 나무 변신의 모티프 연구」, 『문학과환경』 16(1), 문학과환경학회, 2017, 73-122면.

송연주, 「여성소설에 나타난 변신 모티프와 환상성 연구 -한강, 오수연, 송경아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1,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8, 283-308면.

김명주, 「한강의 『채식주의자』에서 피, 섹스, 나무 이미지리 다시 읽기」, 『인문학연구』 59(4),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27-51면.

7) Judith Butler, 양효실 옮김, 『윤리적 폭력 비판』, 인간사랑, 2013, 16면.

으로써 주체는 자신이 종속된 규범 자체를 절대화함으로써 타자를 폭력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나르시즘적 주체의 환상’에 빠져들게 된다⁸⁾.

새로운 윤리적 주체는 보편규범에 종속되어 자신을 자기동일적인 존재로 자처하면서 타자를 억압하는 폭력적인 나르시시즘적 주체에서 벗어나, 자신의 성립조건인 보편규범을 문제 삼으면서 자신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주체⁹⁾로 전회해야 한다. 나아가 주체는 근원적으로 타자와 연결되어 있음¹⁰⁾을 자각하고, 화석화되어가는 타자¹¹⁾가 아직 살아 있음을 호소(address)¹²⁾하는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타자의 특수규범을 번역¹³⁾을 통해 되살려 보편규범을 재정식화¹⁴⁾함으로써, 타자와 공존할 수 있는 타지향적 윤리¹⁵⁾를 지향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그녀(인혜)’를 중심으로 하여, 가부장제와 가족중심주의, 그리고 정신병원 제도로 대표되는 보편규범의 폭력성과 그러한 규범을 성실히 수행하는 주체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영혜’를 중심으로 하여, 보편규범을 거부하고 대안적 특수규범을 지향함으로써 정신병원에 감금된 채 화석이 되어가는 타자의 모습과 함께, 타자를 통해 울리는 호소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그녀’를 중심으로 하여, 보편규범을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자

8) 위의 책, 188면.

9) 위의 책, 30면.

10) 조현준, 「갈림길을 마주한 불확실한 삶-호모 비오랑스의 윤리적 가능성」, 『시대와철학』 25(4),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4, 105면.

11) Judith Butler, Ernesto Laclau, Slavoj Zizek, 박대진, 박민선 역,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 도서출판b, 2009, 249면.

12) 정혜옥, 「주디스 버틀러와 문화 번역의 과제」, 『비평과이론』 20, 한국비평이론학회, 2015, 168면.

13) Judith Butler, Ernesto Laclau, Slavoj Zizek, 앞의 책, 41면.

14) Judith Butler, 양효실 옮김, 『지상에 함께 산다는 것』, 시대의창, 2016, 41-42면.

15) 전혜은, 「근대적 주체 이후의 행위성: 주디스 버틀러의 행위성 이론」, 『영미문화페미니즘』 19(2), 한국영미문화페미니즘학회, 2011, 163면.

신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면서 ‘나무’로 포상되는 타자의 특수규범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새로운 윤리적 주체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폭력적인 보편규범을 수행하는 모성적 주체

이 작품에서 ‘그녀’(인혜)는 보편규범을 수행하는 주체였으나, 자신의 성립조건인 규범을 문제삼고 자신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피하면서 점차 타자를 배려하는 윤리적 주체로 질적 전회를 한다. 이러한 ‘그녀’와 관련해 먼저 보편규범을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이 작품에 제시된 보편규범과 주체의 폭력성¹⁶⁾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가부장제와 가족중심주의의 폭력성이다.

(i) 아버지의 손찌검은 유독 영혜를 향한 것이었다. (중략) 그녀 자신은 지친 어머니 대신 술국을 끓여주는 맏딸이었으니 아버지도 알지못하게 그녀에게만은 조심스러워했다. 온순하나 고지식해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던 영혜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고, 다만 그 모든 것을 뺏속까지 받아들였던 것이다.¹⁷⁾

(ii) 어린시절부터, 그녀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스스로 감당할 줄 알았으며, 성실은 천성과 같았다. 딸로서, 언니나 누나로서, 아내와 엄마로서, 가게를 꾸리는 생활인으로서, 하다못해 지하철에서 스치는 행인으로서까지 그녀는 최선을 다했다. 그 성실의 관성으로 그녀는 시간과 함

16) 현 사회의 도덕적 행동규범이 보편적이고 자명한 진리이기를 멈추고 그것이 고통과 상처를 주는 집단적 에토스의 폭력으로 드러날 때, 그러한 규범은 문제가 된다. 정혜옥, 「혐오발언, 주체의 행위성, 몸의 수행성」, 『비평과이론』 28(1), 한국비평이론학회, 2023, 279면.

17) 한강, 「나무불꽃」, 『채식주의자』, 창비, 2007, 191-192면.

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¹⁸⁾

(i)에서 보듯, ‘그녀’는 술을 먹고 손찌검하는 폭력적인 가부장제 집안의 맏딸로 태어나, ‘지친 어머니’를 ‘대신해’ 폭력적인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고 동생 영혜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지켜만 보았다. (ii)에서 보듯, ‘그녀’는 ‘자수성가를 꿈꾸고,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성실’, ‘최선’을 삶의 태도로 가지고 ‘딸로서, 언니나 누나로서, 아내와 엄마로서, 가게를 꾸리는 생활인으로서, 하다못해 지하철에서 스치는 행인으로서까지’ ‘책임’¹⁹⁾을 다하는 인물이다. 이처럼 ‘그녀’는 폭력적인 가부장제 질서와 가족중심주의에 길들여져, 어머니를 대체한 모성적 희생을 성실히 수행하는 주체의 삶을 살아간다.

한편 ‘그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도 모성적 희생을 다하며 살아간다. “연애경험이 거의 없었던”(160) ‘그녀’는 비디오 작가인 그를 만나 결혼한 후 “팔년 동안”(193) “그를 사랑한다는 확신”(193)도 없이, “그의 말투, 그의 취향, 그의 미각과 잠자리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193) 노력하면서 그를 “존경하려 애썼”(194)고, “인내하고 보살피기 위해 몸을 으스러뜨”(193)리면서 살아왔다.

결혼하기 전 ‘그녀’는 부모님과 동생들을 위해 모성적 희생과 책임감을 다하며 살았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과 아이를 위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인내하고 보살피’는 삶을 산다. ‘그녀’의 이러한 행위와 삶의 방식은 여성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보편규범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그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당연하게 여기고 의심하지 않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18) 위의 글, 169면.

19) ‘책임’은 우리 삶의 어려움과 취약성을 혼자 책임지고 극복할 것을 주문하는 각자도생의 의미가 아니라, 타자의 슬픔과 상처에 반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정혜옥, 위의 글, 307면.) 보편규범을 성실히 수행하는 ‘그녀’에게 있어 ‘책임’은 전자의 의미에 가깝다. 후자의 ‘책임’은 영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녀’의 변화를 통해 그려진다.

다음, 정신병원의 폭력성이다. ‘그녀’가 남편과 여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사건, 정신병원에서 동생을 폐쇄병동에 가두고 몸을 결박하면서 치료를 강행하는 사건 등은 정상/비정상의 경계를 나누고 비정상을 격리와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신병원의 권위적 폭력을 보여준다.

‘그녀’에게 닥친 동생(영혜)과 남편의 ‘근친상간’은 “상식과 이해의 용량을 뛰어넘는”(167) 충격으로 여겨진다. ‘그녀’는 남편과 영혜가 함께 알몸으로 누워 있는 광경을 목도한다. 그리고 비디오테이프에 담긴 그들의 교합 장면을 확인하고 두 사람을 ‘정신이상자로 여기고 ‘신고’한다. 남편이 처제와 성관계를 맺고 비디오로 그것을 촬영한 것은 ‘성실한’ 주체인 ‘그녀’의 입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여겨진다.

주체형성과정²⁰⁾에 따르면, 근친상간은 인간이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진입해 주체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단계에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요소이자 금기의 일종이다. 근친상간은 가부장제 가족중심주의 상징질서를 위협하는 위협한 요소로 규정되어 정신병 행위로 단죄된다. ‘그녀’가 근친상간을 저지른 남편과 동생을 정신이상자로 규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보편규범에 길들여진 결과이다.

축성 정신병원 가지요?

늦은 중년의 버스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올라오라는 손짓을 한다. 차비를 낸 뒤 앞을 의자를 찾는 그녀의 눈에 승객들의 얼굴이 들어온다. 모두 그녀를 주시하고 있다. 환자인가, 보호자인가? 어디 이상한 구석은 없다. 의심과 경계, 혐오와 호기심이 얽힌 그들의 시선을 그녀는 익숙하게 외면한다.²¹⁾

‘그녀’가 자신이 가둔 동생 영혜가 있는 정신병원을 찾아가는 장면이다.

20) J. Lacan, 『에크리』, 홍준기·이종영·조형준·김대진 역, 새물결, 2019, 113면.

21) 한강, 『나무불꽃』, 152면.

사람들은 ‘모두’ ‘정신병원’을 찾아가는 ‘그녀’를 ‘의심, 경계, 혐오, 호기심’과 같은 시선으로 주시한다. ‘정신병원’은 그곳을 찾은 사람마저 ‘이상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의심하도록 만드는 공간이라는 것을 ‘그녀는 ‘익숙하게’ 맞닥뜨려야 한다.

정신병원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인간이성중심주의²²⁾로 표상되는 근대 자본주의 보편규범에서 비롯된다. 인간/자연, 이성/비이성의 이항대립에 기초해, 이성적 인간을 정상인으로, 비이성적 인간을 비정상인으로 규정하고, 후자를 구성적 외부²³⁾로 배척, 억압하는 것이 인간이성중심주의의 규범이다. 정신병원은 비정상인으로 규정된 이들을 일종의 수용소 같은 공간에 감금하고 이성적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사회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성립된 근대 제도이다.²⁴⁾

작품에서 정신병원은 유폐된 수용소 같은 “폐쇄병동”(168) 형태를 띤다. 경기도 마석 축성산에 위치한 정신병원은 “인적도 차량도 드물어 적요”(157)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길은 회색의 콘크리트 벽면은 비에 젖은 탓에 평소보다 어둡고 육중해 보”이고, “이층과 삼층에 배치된 병실의 창살은 쇠창살로 막혀 있”(164)다. 이곳에는 ‘특별한 권위’(208)와 ‘자신감’(170)으로 넘치는 전문의들이 있다. 이들은 인간이성중심주의의 규범으로부터 일탈한 “행려, 정신지체환자”(175), “알콜중독증과 경조증”(182) 환자 같은 존재, 곧 주변적 존재, 사회 소수자들, 비정상인들을 감금한 채,

22) T. Eagleton, 『문학이론입문』, 김명환 외 역, 창작사, 1986, 162-164면.

23) 구성은 규범의 반복을 통해 시간적인 과정을 거쳐 산출된다. 이러한 반복으로 구성적인 불안 정성을 드러내는 틈과 균열들, 말하자면 규범을 벗어나거나 넘어서는 것, 그리고 규범의 반복적인 작업에 의해서는 완전히 정의되거나 고정될 수 없는 것으로 개시되는 것이 일종의 구성적 외부이다. 포함과 배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계, 말하자면 우리에게 의해 지시되는 대상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고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결정짓는 일정한 경계를 표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표시는 규범적이고 폭력적인 위력을 띤다. 이처럼 담론이 스스로를 구축하기 위해 배제하지만 그러한 담론 자체의 동일성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구성적 외부이다.

Judith Butler, 김윤성 역,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인간사랑, 2003, 33-40면.

24) 이광래, 『미셀 푸코』, 민음사, 1999, 112-118면.

“팔다리를 묶고 진정주사를 맞”히면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치료를 행한다.

이처럼 정신병원은 ‘정신’의 차원에서 정상과 미친 사람을 구분하고 ‘미친 사람’으로 여겨지는 환자를 사회와 격리시키는 한편으로, ‘병원’의 입장에서 인간의 정신 이상의 증상을 잠재우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행위를 행하는 공간이라는 이중의 속성을 갖는다. 말하자면 정신과 육체의 차원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가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치료와 의료 행위를 하는 공간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정신병원은 ‘정상’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 ‘치료’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신과 육체의 양 측면에 폭력을 가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의료행위가 환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정신병원의 환자는 인간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비인간의 지위로 추락한다.

자, 한번 더 해봅시다. 이번엔 더 빨리.

다시 튜브에 젤리가 발라진다. 다시 발버둥치는 영혜의 얼굴을 건장한 체격의 보호사가 짓누른다. 튜브가 영혜의 코에 꽂힌다.

됐어. 이제 됐어.

의사의 입에서 짧은 한숨이 새어나온다. 내과 의사의 손이 민첩해진다. 주사기로 미음을 흘려넣기 시작한다. 그녀의 팔을 잡고 있던 간호사가 손에 힘을 주고는 그녀에게 속삭인다.

됐어요. 성공이에요. 이제 잠을 재울 거예요. 토할 수도 있으니까.²⁵⁾

위 인용문은 석달 간의 단식으로 인해 영양실조 상태를 지나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놓인 영혜의 몸을 생명 유지와 연장을 위한 몸으로 여기고 의료 행위의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의사, 간호사, 보호사의 행위를 보여준

25) 한강, 「나무불꽃」, 213면.

다. 영혜는 이러한 치료 행위에 저항한다. 영혜는 온몸을 흔들고 식도를 헛뿌리로 막으며 먹기를 거부한다. 그렇지만 의료진들은 영혜의 생각과 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영혜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갖은 시도를 한다. 이때 의료진들의 행위는 영혜에게 있어 폭력적인 것으로 변한다. 보호자로서 ‘그녀’는 의료진의 행위가 폭력적인 것을 보면서 이를 만류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러한 정신병원 제도에 길들여져 정신병원에서 만나는 환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i) 그때 이십대의 남자 환자 하나가 그녀의 등뒤에 바짝 붙어 선다. 병원에서선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그녀는 불안해진다. 환자들은 사람과 사람의 육체가 지켜야 할 적당한 간격을 무시하고, 시선을 둘 수 있는 적당한 시간을 무시한다. 그렇게 자신만의 세계에 틀어박힌 멍한 시선의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의료진이 아닐까 착각될 만큼 명료한 시선을 가진 환자들도 많다. 한때 그녀의 동생이 그랬던 것처럼.

(중략) 앙칼진 목소리의 삼십대 여자 환자가 수간호사에게 소리친다. 저 환자의 피해망상은 올 때마다 더 심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²⁶⁾

(ii) 서쪽 복도의 저 자리에서 물구나무서 있는 기괴한 여환자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설마 영혜이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다.²⁷⁾

‘멍한 시선의 무리’, ‘앙칼진 목소리’라는 표현에서 보듯, 정신병 환자에 대한 ‘그녀’의 이러한 부정적 인식(i)은 동생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물구나무선 동생을 ‘기괴한 여환자’로 지칭(ii)하는 것이나, 먹기를 거부하고 나무가 되고자 하는 동생에게 “미친 거니, 너 정말 미친 거야.”(203)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동생을 정신병자로 단죄하고, 이들을 부정적으로 판단

26) 위의 글, 182면.

27) 위의 글, 177면.

하는 인식의 메커니즘에 ‘그녀’가 길들여져 있음을 보여준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또렷하지 않다. ‘그녀’가 영혜와 정신병원에 갔을 때, 누가 환자냐고 묻는 것은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선명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신병원에는 ‘명료한 시선을 가진’ 환자 같지 않은 환자들부터 ‘자신만의 세계에 틀어박힌 멍한 시선의 무리들’까지 존재한다. ‘그녀’는 정신병원에서 ‘정상’의 영역에 남아있기 위해, 그리고 ‘비정상’, ‘정신병환자’와 ‘같이 지는’ 것에 대한 공포와 불안²⁸⁾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신병원의 환자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정상/비정상의 이분법에 기초해 비정상을 구성적 외부로 배척하고 감시하는 폭력적인 보편규범과 그 규범을 성실히 수행하는 나르시시즘적 주체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3. 화석화된 타자와 생명의 소리

영혜는 폭력적인 보편규범에 맞서 대안적 특수규범²⁹⁾을 지향함으로써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호모 사케르(homo-sacer)³⁰⁾처럼, 살아서도 죽은 삶 또는 벌거벗은 삶을 살아가는 화석화 혹은 유령화되어가는 타자로 등장한다. 영혜는 ‘채식’을 고집한다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당한다. 억지로 고기를 먹이려는 가족에게 대항하면서 영혜는 결국 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하기에 이른다. 그 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28) J. Butler,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앞의 책, 115면. 여자-남자, 자연-문명, 몸-정신과 같은 대립쌍은 상호배제적이고 상호보충적인 방식으로 성립되는데, 공포와 금기가 그 위계와 구별을 안정화시킨다.

29) 전혜은, 앞의 글, 179면.

30) Giorgio Agamben,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179면.

퇴원한 ‘그녀’는 이혼을 당하게 된다. 이후 영혜는 몸에 꽃을 그려 넣고 형부와 성관계를 맺는데, 그 일로 언니에게 정신이상자로 취급받고 정신병원으로 보내진다. 영혜의 부모는 더이상 영혜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관계를 끊어버린다.

영혜는 서울의 정신병원에 있다가 입원비(175) 등의 이유로 마석의 축성산 근처 정신병원으로 옮겨진다. 새 병원에 도착한 영혜는 ‘그녀’에게 “여기서도 나무들이 보이네.”(175)라며 “세상의 나무들은 모두 형제 같아.”(175)라고 속삭인다. 이처럼 영혜는 ‘나무’로 표상되는 특수규범을 지향한다.

(i) 소리가 들렸어, 라고 영혜는 링거바늘을 꽂고 누운 채 대답했었다.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간 것뿐이야……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길래……거기 서서 기다린 것뿐이야.

뭘 기다렸다는 거야, 하고 그녀가 묻자 영혜는 갑자기 눈빛에 열기를 띠었다. 바늘을 꽂지 않은 손을 뺀어 그녀의 손을 움켜잡았다. 그 약력이 너무 강해 그녀는 놀랐다.

비에 녹아서……전부 다 녹아서…… 땅속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어. 다시 거꾸로 돌아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³¹⁾

(ii) 난 몰랐거든. 나무들이 똑바로 서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게 됐어. 모두 두 팔로 땅을 받치고 있는 거더라구. 봐, 저기 봐, 놀랍지 않아?

영혜는 벌떡 일어서서 창을 가리켰다.

모두, 모두 다 물구나무서 있어.

까르륵 영혜가 웃었다. (중략)

어떻게 내가 알게 됐는지 알아? 꿈에 말이야. 내가 물구나무서 있었는데…… 내 몸에서 잎사귀가 자라고, 내 손에서 뿌리가 돌아서……땅속으로

31) 한강, 「나무불꽃」, 195-196면.

파고들었어. 끝없이, 끝없이…… 사타구니에서 꽃이 피어나려고 해서 다리를 벌렸는데, 활짝 벌렸는데……

열에 들뜬 영혜의 두 눈을 그녀는 우두망찰 건너다보았다.

나, 몸에 물을 맞아야하는데. 언니, 나 이런 음식 필요없어. 물이 필요한데.³²⁾

(iii) 영혜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나, 내장이 다 퇴화됐다고 그러지, 그치.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영혜의 여윈 얼굴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이제 동물이 아니야 언니.

중대한 비밀을 털어놓는 듯, 아무도 없는 병실을 살피며 영혜는 말했다.

밥 같은 거 안 먹어도 돼. 살 수 있어. 햇빛만 있으면.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정말 나무라도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식물이 어떻게 말을 하니. 어떻게 생각을 해.

영혜는 눈을 빛냈다. 불가사의한 미소가 영혜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언니 말이 맞아…… 이제 곧, 말도 생각도 모두 사라질 거야. 금방이야.³³⁾

영혜는, (i)에서 나무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병원을 탈출했고, 나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 나무처럼 그곳에 서 있었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은 이유는 나무들이 거꾸로 돌아나기 위해 비에 전부 녹아 땅 속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기 때문이라 말한다. (ii)에서, 꿈에서 자신이 물구나무를 서면서 나무가 되어 땅 속으로 파고드는 경험을 하고, 현실에서 나무가 되기 위해 물구나무를 서면서 음식이 필요 없고 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iii)에

32) 위의 글, 179-180면.

33) 위의 글, 186-187면.

서, 자신이 동물이기를 거부하고 동물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내장이 퇴화되었다면서 곧 말과 생각도 모두 사라지고 햇빛만 필요한 나무가 될 것이라 단언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영혜는 폭력적인 보편규범과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에 의해 타자화되어 정신병원이라는 일종의 폐쇄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다는 점이다. 곧 타자로서의 영혜가 타자인 나무가 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영혜=나무=타자’가 되어 보편규범에 저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혜는 타자인 ‘나무의 소리’를 듣는다. ‘나무의 소리’는 인간/자연의 이분법적 보편규범에 의해 타자로 배척되어 상처입은 타자의 고통의 언어³⁴⁾이다. 그 언어는 보편규범에 의해 배척되고 억압받으면서 화석화되고 유행화되어가는 타자가 아직 살아 있음을 알리는 성스러운 생명의 소리³⁵⁾이다. 이분법적 보편규범과 그 규범의 언어, 곧 인간의 언어에 길들여진 주체는 타자의 타자성을 말살하고 주체의 입장에서 타자를 자기동일화하므로 살아 있음을 알리는 타자의 소리를 결코 듣지 못한다. 그러나 영혜는 ‘똑바로 서기’로 표상되는 보편규범의 수행을, 나아가 인간의 말과 생각 모두를 거부하면서 비로소 이러한 화석화된 타자의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i)에서 보듯, 주체에 의해 감금된 영혜는 타자로서 자신과 동일한 자리에 있는 나무의 소리, 살아 있음을 알리는 생명의 소리를 듣는다. 나무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간 영혜는 나무가 비에 녹아 전부 땅속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목도한다. 영혜는 나무의 그런 모습을 화석화된 나무가 생명을 얻기 위한, 즉 ‘다시 거꾸로 돌아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인지한다. 이를 통해 타자로서의 영혜도 화석화를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동물’이기를 거부하고 나무처럼 자신도 땅속으로 들어가 거꾸로 돌아나야 한다는 것을 인지한다. 그것이 ‘물구나무서기’

34) 전혜은, 앞의 글, 178면.

35) 정혜옥, 「주디스 버틀러의 문화 번역의 과제」, 앞의 글, 161면.

로 구체화된다.

(ii)에서 보듯, 영혜는 꿈속에서 자신이 물구나무를 선 채 자신의 몸이 나무가 되어 땅속으로 끝없이 파고 들면서 뿌리가 돋고 잎사귀가 자라고 꽃이 피는 경험을 한다. 이러한 꿈속의 경험을 현실에서 실현하는데, 나무들이 똑바로 서 있지 않고 두 팔로 땅을 받치고 물구나무서 있다면서 자신도 물구나무서기를 한다. 영혜는 나무처럼 물구나무서기를 통해 땅속으로 들어가(죽는 것) 다시 ‘거꾸로’ 돌아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음식이 아니라 물이라 말한다. 여기서 영혜가 꿈과 현실의 경계를 지우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러한 행위는 삶과 죽음, 육체와 영혼, 시간과 무시간의 경계를 지우고 모두가 ‘형제’가 되는 세계로의 지향성으로 확산, 심화된다.

(iii)에서 보듯, 영혜는 보편규범이 지배하는 세계를 인간의 세계, ‘동물’의 세계로 규정하고, 스스로 ‘식물’과 ‘나무’가 되어 새롭게 태어나고자 한다. 인간과 동물의 음식, ‘밥’을 거부하고, 식물과 나무에 필요한 ‘햇빛’만을 지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말과 생각’을 모두 지우려 한다. 여기서 ‘말과 생각’은 주체로서의 인간과 그 보편규범의 말과 생각을 의미한다. 보편규범에 종속된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 따라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날 때, ‘나무’는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물구나무선 것으로 여겨진다.

영혜가 도달한 이 자리는 특수규범을 극한으로 밀고 간 것에 해당한다. 이 자리는 탈인간의 영역에 해당한다. 이분법적 보편규범에 길들여진 주체로서의 인간의 자리를 스스로 벗어던지고, 인간과 자연, 주체와 타자의 경계 구분이 사라지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영혜가 도달하고자 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영혜의 이러한 욕망은 실현되지 못한다. 나무가 되기 위해 물구나무서는 영혜의 행위는 ‘똑바로 서’기를 요구하는 정신병원의 직원들과

언니 ‘인혜’에 의해 저지당하고, 석달 쯤 모든 인간의 음식을 거부하는 영혜의 욕망은 보편규범에 의해 정신병자로 단죄된다. 육체의 생명 연장만을 중시하는 정신병원은 치료라는 명분으로 강제적이고 폭력적으로 음식을 먹도록 영혜에게 강요한다. 영혜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함으로써 점점 회색화되어간다.

영혜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살아 있음을 알리는 고통의 언어, 생명의 소리를 보편규범에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치 영혜가 나무의 타자성을 인정하고 그 생명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영혜의 생명의 호소에 귀기울이고 영혜의 타자성을 인정하면서 영혜의 생명의 소리를 보편규범의 영역으로 번역함으로써 ‘영혜=나무’로 표상되는 대안적 특수규범으로 보편규범을 재정식화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그 역할은 ‘그녀’에게 주어진다.

4. 주체의 자서전적 성찰과 타자의 타자성 인정

이 작품에 등장하는 ‘그녀’는 보편규범을 수행하는 주체보다는, 주체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타자의 특수규범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새로운 윤리적 주체로서의 모습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새로운 윤리적 주체로의 질적 전회는 두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비디오 촬영 사건 이전에 일어나는데, 이는 ‘그녀’가 자신이 살아온 지난 삶에 대한 자서전적인 성찰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성립조건을 문제 삼는 것³⁶⁾에서 비롯된다. ‘그녀’는 한 달 가까이 하혈을 하면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마주하고 과거의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한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보편규범

36) Judith Butler, 『윤리적 폭력 비판』, 앞의 책, 26면. 버틀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서전적 설명’이라는 구조를 통해, 주체는 근원적으로 타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존재론적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성립 조건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간다고 본다.

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후회와 좌절에 빠진다.

“이년 전 사월, 그러니까 그가 영혜의 비디오를 찍던 해의 봄에 ‘그녀’는 한달 가까이 하혈”(196)을 한다. ‘그녀’는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워 진찰을 미루면서 “만일 나쁜 병이라면,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일년. 육개월. 아니면 삼개월.”(196)일까 걱정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본다.

(i) 그때 그녀가 처음으로 생생하게 의식한 것은 그와 함께 살아온 긴 시간이었다. 기쁨과 자연스러움이 제거된 시간. 최선을 다한 인내와 배려만으로 이어진 시간. 바로 그녀 자신이 선택한 시간이었다.³⁷⁾

(ii) 문득 이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것에 그녀는 놀랐다. 사실이었다. 그녀는 살아본 적이 없었다. 기억할 수 있는 오래전의 어린시절부터. 다만 견뎌왔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량한 인간임을 믿었으며, 그 믿음대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 성실했고, 나름대로 성공했으며,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후락한 가건물과 옷자란 풀들 앞에서 그녀는 단 한번도 살아본 적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다.³⁸⁾

(i)에서, ‘그녀’는 그를 대신해 가정을 이끌어온 ‘그녀’의 지난 삶이 ‘기쁨과 자연스러움이 제거’되고 ‘인내와 배려’만 이어진 시간이었음을 깨닫는다. (ii)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던 모든 삶이 ‘살아온’ 것이 아니라 ‘선량한 인간’, ‘성실’, ‘성공’을 위해 ‘견뎌’온 삶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는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녀’는 급기야 “이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살아간’다는 것은 ‘그녀’가 보편규범에 길들여져 무조

37) 한강, 「나무불꽃」, 196면.

38) 위의 글, 196-197면.

건적으로 복종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한 주체로서의 자신의 자발적인 욕망의 자리를 알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기쁨’을 얻는 삶을 의미한다³⁹⁾. 인간이 만든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위용을 잃고 후락해지지만, 그곳에 ‘웃자란 풀들’처럼 자연의 질서는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는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배태되어야 할 욕망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왔음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상이 없다는 의사 소견을 듣지만, 이후 “사개월여의 시간”(198) 동안 ‘그녀’의 지난 삶에 대한 후회와 좌절은 더욱 깊어진다.

(i) 하혈은 이주쯤 더 계속되다가 상처가 아물며 멈췄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몸에 상처가 뚫려 있다고 느꼈다. 마치 몸뚱이보다 크게 벌어진 상처여서, 그 캄캄한 구멍 속으로 온몸이 빨려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⁴⁰⁾

(ii) 지우를 데리고 가는 저녁이면 그녀는 무덤처럼 지쳐 있었다. 음악과 연인들로 넘쳐나는 열대야의 거리 한편을 걸으며, 그녀는 예의 캄캄한 구멍이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서 입을 벌린 채 그녀를 빨아들이려 하는 것을 느꼈다.⁴¹⁾

(i)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지 얼마되지 않는 시점에, (ii)는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된 시점에 해당한다. ‘단 한번도 살아본 적 없다’는 ‘그녀’의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져 ‘그녀’는 자신이 ‘몸뚱이보다 크게 벌어진 상처’, ‘캄캄한 구멍’ 속으로 빨려들어간다는 느낌을 갖는다.

39) ‘나’를 비롯해 ‘너’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가치적으로 한 지점을 점유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이현재, 「인간의 자기한계 인식과 여성주의적 인정의 윤리」, 『한국여성학』 23(2), 한국여성학회, 2007, 133면.

40) 한강, 「나무불꽃」, 198면.

41) 위의 글, 같은 면.

이러한 느낌은 그(남편)와의 일로 더욱 깊어진다. “무더웠던 여름이 아침저녁으로 서늘해지던 즈음”(198) “며칠 만에 새벽에 들어온 그가 도둑처럼 안았”을 때, ‘그녀’는 피곤하다고 그를 밀치지만 그는 “잠깐만 참”으라면서 일방적으로 ‘그녀’를 안는다.

그때 그녀는 기억했다. 그 말을 그녀가 잠결에 무수히 들었다는 것을. 잠결에, 이 순간만 넘기면 얼마간은 괜찮으리란 생각으로 견뎠다는 것을. 혼곤한 잠으로 고통을, 치욕마저 지우곤 했다는 것을. 그리고 난 아침식탁에서 무심코 젓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찌르고 싶어지거나, 찻주전자의 끓는 물을 머리에 붓고 싶어지곤 했다는 것을.⁴²⁾

하혈 사건 이후 지난 사개월 동안 ‘커다란 구멍’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느낌에 사로잡혔던 ‘그녀’는 그와의 일방적인 성관계에서도 잠깐의 인내로 고통과 치욕을 ‘견뎌’내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깨닫는다. 그 이후 ‘그녀’는 “온몸의 습기가 바짝 말라버린 것”처럼 “건조된 육신이 이미 너털너털해진 것”(199) 같음을 느낀다. 동시에 익숙한 집안의 모든 것이 “처음 보는 물건인 듯, 처음 들어와본 집”(200)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급기야 “그 집이 점점 자신의 몸을 죄어들어오는 것 같은 압박감”, “이상한 흥통”을 느낀다.

이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
더 앞으로 갈 수 없다.
가고 싶지 않다.

그녀는 다시 한번 집 안의 물건들을 둘러보았다. 그것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과 꼭 같았다.

42) 위의 글, 199면.

봄날 오후의 국철 승강장에 서서 죽음이 몇 달 뒤로 다가와 있다고 느꼈을 때, 몸에서 끝없이 새어나오는 선혈이 그것을 증거한다고 믿었을 때 그녀는 이미 깨달았었다. 자신이 오래전부터 죽어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곁에 나란히 선 죽음의 얼굴은 마치 오래전에 잃었다가 돌아온 혈육처럼 낮익었다.⁴³⁾

하혈 이후 자신의 삶을 회의해온 ‘그녀’는 자해의 충동, ‘깜깜한 구멍’ 같은 상처의 환각, ‘이상한 흉통’과 같은 통증, 불면과 같은 증상을 거쳐 급기야 ‘죽음의 얼굴’과 마주한다. 자신의 삶이 자신이 ‘살고자’ 한 삶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죽어 있’는 삶임을 깨닫는다.

이 죽음의 얼굴은 스스로를 주체로 착각하며 살아온 ‘그녀’의 얼굴이다. 그리고 이 죽음의 얼굴에 대한 자각은 보편규범에 속박된 주체에 대한 거부, 꺾대기 같은 주체에 대한 죽음의 선언에 해당한다. ‘모성적 희생’이 여성을 주체로 형성해 주는 조건이라고 여기는 ‘그녀’는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주체화를 이루고자 한다. 그러나 보편규범이 요구하는 모성의 반복적 수행을 통해 ‘그녀’는 무조건적인 희생과 인내가 오히려 정신과 육체 모두에서 ‘그녀’ 자신의 주체성을 박탈하고 배척하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 자각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타자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⁴⁴⁾.

폭력적 보편규범을 수행하는 ‘죽은 얼굴’의 주체에서 벗어나 본래의 살아 있는 얼굴을 되찾는 것은 자신에 내재한 타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곧 보편규범과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에 의해 타자의 존재가 억압받아왔음을 인정하는 것, 그 타자성을 여성으로서의 자신 역시 내부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 타자가 진정 ‘살아 있는’ 존재로 질적 전회를 하기 위해서는 주체/타자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타자의 타자성을 인

43) 위의 글, 201면.

44) 인간은 그 내부에 언제나 타자를 안고 있는 양가적이고 비결정적인 존재이다. 이를 깨달을 때 자기동일적 주체는 빈껍데기이며 가면에 불과한 것임을 자각하게 된다. 조현준, 앞의 글, 105면.

정하면서 타자와 공존하는 타자지향적 윤리적 주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그녀’는 ‘캄캄한 구멍’, ‘이상한 흉통’, ‘죽음의 얼굴’로 이어지는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 타자로서의 여성이 아닌 진정한 ‘주체=타자’로서의 여성, ‘살아 있는 얼굴’로서의 여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녀’가 “자신을 집어삼키는 구멍 같은 고통을, 격렬한 두려움을, 거기 동시에 배어든 이상한 평화를”(202) 느끼는 상황은 죽은 얼굴의 주체를 자각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의 상태를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다음, 질적 전회의 두 번째 단계이다. 폭력적인 보편규범과 그 규범을 수행하는 주체에 대한 자기 비판과 반성 그리고 자신의 타자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그녀’는 근원적으로 타자와 연관되어 있다는 주체의 존재론적 한계⁴⁵⁾를 자각하고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윤리적 주체로 나아가갈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것은 동생 영혜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

언제나처럼 고개를 돌려 병원 안뜰의 느티나무를 내다본다. 수령이 사백년은 되어 보이는 고목이다. 맑은 날에 수많은 가지들을 펼치고 햇빛을 반사하던 저 나무는 그녀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같았는데, 비에 잠긴 오늘은 할말을 안으로 감춘 과묵한 사람 같다. 늙은 밑동의 껍질은 흠뻑 젖어 저녁처럼 어둡고, 잔가지의 잎사귀들은 말없이 떨며 비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 형상 위로 귀신처럼 겹쳐지는 영혜의 모습을 그녀는 조용히 쏘아본다.

그녀는 충혈된 눈을 오래 감았다 뜬다. 여전히 침묵하는 나무가 시야에 가득 찬다. 지우는 그날 밤 이후 회복되어 다시 어린이집에 다니지만 그녀는 여전히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꼬박 석달째 한시간 이상 이어서 잠들지 못했다. 영혜의 목소리와 검은 비가 내리는 숲,

45) 위의 글, 102면.

눈에서 선혈이 흐르는 자신의 얼굴이 긴 밤을 사금과리처럼 잘게 바수어
 널 뿐이다.⁴⁶⁾

위 인용문은 ‘그녀’가 정신병원에 영혜를 면회 가서 나무와 영혜의 모습
 을 일체시키는 장면이다. 여기서 ‘나무와 일체된 영혜’와 ‘눈에서 선혈
 을 흘리는 자신의 얼굴’이 대비되고 있음에 주목하자. ‘피흘리는 얼굴’은
 주체로 길들여져 살아온 ‘그녀’의 ‘죽은 얼굴’이 내면화된 것으로, 폭력적
 인 규범에 의해 자신의 타자성을 말살당한 ‘그녀’의 모습에 해당한다. 반
 면, ‘나무와 하나가 된 영혜’는 폭력적인 보편규범에 길들여진 주체의 삶
 을 거부하고 ‘나무’로 표상되는 대안적 특수규범을 강렬히 지향함으로써
 그 규범과 하나가 된 영혜의 모습에 해당한다. ‘그녀’가 자신의 타자성을
 인정하기 전에는 영혜의 그런 삶을 정신병자의 삶으로 규정하고 ‘그녀’ 스
 스로 영혜를 정신병원에 감금했지만, 자신의 타자성을 인정하게 된 지금
 ‘그녀’는 비로소 영혜의 타자성과 마주하게 되고 영혜의 삶을 이해하고 공
 감하게 되는 것이다.

(i) …… 미친 거니, 너 정말 미친 거야.

지난 수년 동안 자신이 결코 믿을 수 없었던 그 질문을, 그녀는 처음
 으로 영혜에게 던진다.

…… 네가 정말 미친 거니.

(중략)

미친다는 건, 그러니까……

(중략)

지금 그녀가 남모르게 겪고 있는 고통과 불만을 영혜는 오래전에, 보
 통의 사람들보다 빠른 속력으로 통과해, 거기서 더 앞으로 나아간 걸까.
 그러던 어느 찰나 일상으로 이어진 가느다란 끈을 놓아버린 걸까. 잠을

46) 한강, 「나무불꽃」, 164-165면.

이루지 못한 지난 석달 동안 그녀는 이따금 혼란 속에서 생각해왔다. 지우가 아니라면—그애가 지워준 책임이 아니라면—자신 역시 그 끈을 놓쳐버릴지도 모른다고.⁴⁷⁾

(ii) 그녀는 덩굴처럼 알몸으로 얽혀 있던 두 사람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것은 분명히 충격적인 영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성적인 것으로 기억되지 않았다. 꽃과 잎사귀, 푸른 줄기 들로 뒤덮인 그들의 몸은 마치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듯 낮설었다. 그들의 몸짓은 흡사 사람에서 벗어나오려는 몸부림처럼 보였다. 그는 무슨 마음으로 그런 테이프를 만들고 싶어했을까. 그 기묘하고 황량한 영상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전부를 잃었을까.⁴⁸⁾

(i)에서 보듯, ‘지금 ‘그녀’가 남모르게 겪고 있는 고통과 불행’은 ‘죽은 얼굴’을 한 주체로서의 삶에 대한 반성과 후회, 그리고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싶다는 갈망에서 비롯된다. ‘그녀’는 이 고통과 불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우’와 관련된 ‘끈’, 곧 가족중심주의라는 ‘일상’의 ‘끈’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끈을 놓는 것은 정상/비정상의 이분법적 경계가 지배하는 보편규범의 자리에서 볼 때 비정상, 곧 ‘미친다는 것’에 해당한다. ‘그녀’는 ‘지난 석달’ 동안 그 ‘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 ‘끈’을 놓아버리고 ‘보통 사람들보다 빠른 속력으로’ 비정상의 자리로 나아간 동생 영혜를 생각한다.

(ii)에서 ‘그녀’는 남편과 동생 영혜가 알몸으로 얽혀 있던 장면을 떠올린다. 과거에 자신의 타자성을 인식하기 전에 ‘그녀’는 두 사람을 정신병자로 감금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두 사람의 행위를 ‘성적인 것’으로 기억하는 것에서 ‘사람에서 벗어나오려는 몸부림’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47) 위의 글, 203-204면.

48) 위의 글, 218면.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영혜가 지향하는,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지향하는 ‘나무’로 표상되는 특수규범의 세계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하다.

영혜가 갖는 타자성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그녀’는 ‘피흘리는 얼굴’을 극복하고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적 특수규범을 모색하게 된다. 그 특수규범은 영혜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 ‘꽃과 잎사귀, 푸른 줄기’로 표상되는 ‘나무’의 세계이자 탈인간화의 세계이다.

아직 어두운 새벽, 지우가 깨어나기 전까지의 서너 시간. 어떤 살아 있는 것의 기척도 들리지 않는 시간. 영원처럼 길고, 늪처럼 바닥이 없는 시간. 빈 옥조에 웅크려 눈을 감으면 캄캄한 숲이 덮쳐온다. 검은 빗발이 영혜의 몸에 창처럼 꽂히고, 깡마른 맨발이 진흙에 덮인다. 그 모습을 지우려고 고개를 흔들면, 어째서인지 한낮의 여름 나무들이 마치 초록빛의 커다란 불꽃들처럼 그녀의 눈앞에 어른거린다.

영혜가 들려준 환상 때문일까. 살아오는 동안 보았던 무수한 나무들, 무정한 바다처럼 세상을 뒤덮은 숲들의 물결이 그녀의 지친 몸을 휩싸며 타오른다. 도시들과 소읍들과 도로는 크고작은 섬과 다리들처럼 그 위로 떠올라 있을 뿐, 그 뜨거운 물결에 밀려 어디론가 서서히 떠내려가고 있을 뿐이다.

그녀는 알 수 없다. 그것들의 물결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새벽 좁다란 산길의 끝에서 그녀가 보았던, 박명 속에서 일제히 푸른 불길처럼 일어서던 나무들은 또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은 결코 따뜻한 말이 아니었다. 위안을 주며 그녀를 일으키는 말도 아니었다. 오히려 무자비한, 무서울 만큼 서늘한 생명의 말이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받아줄 나무를 찾아낼 수 없었다. 어떤 나무도 그녀를 받아들여려 하지 않았다. 마치 살아 있는 거대한 짐승들처럼, 완강하고 삼엄하게 온몸을 버티고 서 있을 뿐이었다.⁴⁹⁾

꿈속에서, 또 현실에서 ‘그녀’는 영혜와 함께 하던 ‘무수한 나무들’과 ‘숲의 ‘물결이 ‘그녀’의 지친 몸을 휩싸며 타오’르고, ‘도시’와 ‘소읍’이라는 일상을 지나 ‘그녀’를 어디론가 새로운 세계로 데려가고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비록 ‘나무’는 아직 ‘그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지만, ‘그녀’는 나무들의 ‘서늘한 생명의 말’을 듣는다. 이처럼 ‘그녀’는 나무와 하나가 되기 위해 보편규범으로부터 이탈해 나무로 표상되는 타자의 특수규범의 세계로 스스로를 점차 더 깊숙이 투입시켜 나간다. 그럼으로써 영혜가 걸어간 길에 자신을 일체시켜 나간다.

…… 이건 말이야.

그녀는 문득 입을 열어 영혜에게 속삭인다. 덜컹, 도로가 파인 자리를 지나며 차체가 흔들린다. 그녀는 두 손에 힘을 주어 영혜의 어깨를 붙든다.

…… 어찌면 꿈인지 몰라.

그녀는 고개를 수그린다. 무언가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영혜의 컷바퀴에 입을 바짝 대고 한마디씩 말을 잇는다.

꿈속에선, 꿈이 전부인 것 같잖아. 하지만 깨고 나면 그게 전부가 아닌란 걸 알지……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깨어나면, 그때는 ……

그녀는 고개를 든다. 구급차는 축성산을 벗어나는 마지막 굽잇길을 달려나가고 있다. 솔개로 보이는 검은 새가 먹구름장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이 보인다. 쏘는 듯한 여름햇살이 눈을 찔러, 그녀의 시선은 그 날갯짓을 더 따라가지 못한다.

조용히, 그녀는 숨을 들이마신다. 활활 타오르는 도로변의 나무들을, 무수한 짐승들처럼 몸을 일으켜 일렁이는 초록빛의 불꽃을 쏘아본다. 대답을 기다리듯, 아니, 무엇인가에 향의하듯 그녀의 눈길은 어둡고 끈질기다.⁵⁰⁾

49) 위의 글, 205-206면.

50) 위의 글, 220-221면.

영혜처럼 나무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는 것, 깨어나서도 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 ‘어둡고 끈질기게 나무의 세계와 교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꿈과 현실, 인간과 나무, 주체와 타자,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허물어진 자리에서 가능하다. 그 자리는 폭력적인 보편규범과 그 규범을 수행하는 주체에 대한 자기 비판과 반성에서 출발해,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고 타자의 특수규범과 호흡하면서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윤리적 주체만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또한 그 자리는 영혜의 타자성을 인정하면서 영혜의 생명의 소리를 보편규범의 영역으로 번역함으로써, ‘영혜=나무’로 표상되는 대안적 특수규범으로 보편규범을 재정식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한강의 『채식주의자』 연작 중 「나무불꽃」을 중심으로 주체, 타자, 규범에 주목하여 새로운 윤리적 주체의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다. 새로운 윤리적 주체는 보편규범에 종속되어 자신을 자기동일적인 존재로 자처하면서 타자를 억압하는 폭력적인 나르시시즘적 주체에서 벗어나, 자신의 성립조건인 보편규범을 문제 삼으면서 자신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주체로 전회해야 한다. 나아가 주체는 근원적으로 타자와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화석화되어가는 타자가 아직 살아 있음을 호소하는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타자의 특수규범을 번역을 통해 되살려 보편규범을 재정식화함으로써, 타자와 공존할 수 있는 타자 지향적 윤리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고는 대안적 특수규범을 지향하는 여성 인물 ‘영혜’와 함께, ‘영혜’를 매개로 하여 자신의 성립조건인 보편규범을 문제 삼고 주체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피하면서 점차 타

자를 배려하는 윤리적 주체로 질적 전회하는 여성 인물 ‘그녀’의 모습과 의의를 고찰하였다.

‘그녀’는 가부장제와 가족중심주의, 그리고 정신병원 제도로 대표되는 보편규범의 폭력성과 그러한 규범을 성실히 수행하는 주체이다. 반면, 동생 ‘영혜’는 폭력적인 보편규범을 거부하고 ‘나무’로 표상되는 대안적 특수규범을 지향함으로써 정신병원에 감금된 채 화석화되어가는 타자이다. 영혜는 아직 살아 있음을 알리는 타자의 성스러운 생명의 소리와 하나가 됨으로써 ‘인간’의 자리를 스스로 벗어던지고, 인간과 자연, 주체와 타자의 경계와 구분이 사라지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한다.

한편, 애초에 영혜를 정신병원에 감금했던 ‘그녀’는 주체로서의 삶이 ‘죽은 얼굴’ 같은 삶을 깨닫고, 보편규범을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자신을 반성적으로 성찰한다. 이를 통해,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고 타자의 특수규범과 호흡하면서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윤리적 주체로 거듭나는 자리로 나아간다. 그 자리는 동생 영혜가 걸어간 ‘나무’로 표상되는 특수규범과 하나 되는 지점이고, 꿈과 현실, 인간과 나무, 주체와 타자,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허물어진 세계이다. 또한 그 자리는 ‘그녀’가 영혜의 생명의 소리를 보편규범의 영역으로 번역함으로써 ‘영혜=나무’로 표상되는 대안적 특수규범으로 보편규범을 재정식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한강, 「나무불꽃」, 『채식주의자』, 창비, 2007.

2. 국내 논문 및 단행본

- 김명주, 「한강의 『채식주의자』에서 피, 섹스, 나무 이미지리 다시 읽기」, 『인문학연구』 59(4),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27-51면.
- 박진, 「한강 연작소설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글쓰기의 자의식과 독서의 알레고리」, 『현대문학이론연구』 79, 현대문학이론학회, 2019, 105-128면.
- 손정수, 「식물이 자라는 속도로 글쓰기-한강론」, 『작가세계』 88, 2011, 봄호.
- 송연주, 「여성소설에 나타난 변신 모티프와 환상성 연구 -한강, 오수연, 송경아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1, 2008,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83-308면.
- 심진경, 「변신하는 주체와 심리적 현실로서의 환상-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65, 세계문학비교학회, 2018, 61-76면.
- 양정현, 「현대 소설에 나타난 나무 변신의 모티프 연구」, 『문학과환경』, 16(1), 문학과환경학회, 2017, 73-122면.
- 양현진, 「한강 소설의 분신(分身) 구조와 주체성」, 『현대소설연구』 7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247-280면.
- 오은엽, 「한강 소설에 나타난 ‘나무’ 이미지와 식물적 상상력-『채식주의자』, 「나무불꽃」, 「내 여자의 열매」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7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6, 273-295면.
- 우미영, 「주체화의 역설과 우울증적 주체-한강의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0,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451-481면.
- 이광래, 『미셀 푸코』, 민음사, 1999.
- 이현재, 「인간의 자기한계 인식과 여성주의적 인정의 윤리」, 『한국여성학』 23(2), 한국여성학회, 2007, 111-141면.
- 장수익, 「감각과 분열증-한강 소설 연구1」, 『한국현대문학연구』 58, 한국현대문학학회, 2019, 393-431면.
- 전혜은, 「근대적 주체 이후의 행위성: 주디스 버틀러의 행위성 이론」, 『영미문학페미니즘』 19(2),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11, 153-191면.
- 정혜옥, 「주디스 버틀러와 문화 번역의 과제」, 『비평과이론』 20(1), 한국비평이론학회,

2015, 141-174면.

_____, 「혐오발언, 주체의 행위성, 몸의 수행성」, 『비평과이론』 28(1), 한국비평이론학회, 2023, 271-313면.

조현준, 「갈립길을 마주한 불확실한 삶-호모 비오랑스의 윤리적 가능성」, 『시대와철학』 25(4),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4, 97-130면.

3. 국외 논문 및 단행본

Agamben, Giorgio,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Butler, Judith, 양효실 옮김, 『윤리적 폭력 비판』, 인간사랑, 2013.

_____,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김윤상 역, 인간사랑, 2003.

_____, 양효실 옮김, 『지상에 함께 산다는 것』, 시대의창, 2016.

Bulter, Judith, Laclau, Ernesto, Zizek, Slavoj, 박대진 외 옮김,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 도서출판b, 2009.

Eagleton, T., 『문학이론입문』, 김명환 외 역, 창작과비평사, 1986.

Lacan, Jacques, 『에크리』, 홍준기 · 이종영 · 조형준 · 김대진 역, 새물결, 2019.

<Abstract>

Turn as a new ethical subject that recognizes
the other's otherness

–Focusing on the “Flaming Trees” of the Han Gang’s novel

Joo, Jiyoung

In this paper, focusing on “Flaming Trees” in the series of “Vegetarian” by Han Gang, we looked at the subject gradually turning into an ethical subject that cares for others while taking issue with universal norms, and listening to the appeals of others, who are threatened by universal norm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s, others, and norms.

She is a subject who faithfully carries out the violence of universal norms represented by masculism, patriarchy, and mental hospital systems. On the other hand, younger sister ‘Young-hye’ is depicted as a different person being fossilized as ‘homo-sacer’ while being confined to a mental hospital by rejecting universal norms and aiming for an alternative special norm. Listening to the appeal of her younger sister Young-hye, she reflects on herself as a subject who practices universal norms, acknowledges the other’s otherness, and becomes a new ethical subject who wants to become one with the other’s special norms represented by ‘tree’. It is embedded in the place where the boundaries between dreams and reality, humans and trees, subjects and others, and normal and abnormalities are broken by the subject who reads the other’s otherness.

Key words: Han Gang, “Flaming Trees”, constitutive outside, Others’ otherness, new ethical subject, universal norms, special norms, address, autobiographical reflection, translation

투 고 일: 2024년 5월 15일

심 사 일: 2024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14일

수정마감일: 2024년 6월 25일